

독일 2011년 노동시장 현황과 2012년 전망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박사과정(경제학))

■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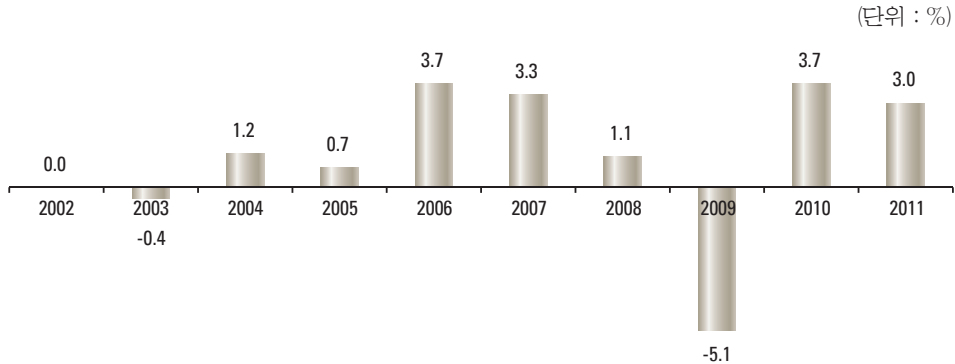
2011년에 들어선 후에도 독일경제는 전년도부터 이어져 온 지속적인 경기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가장 최근의 산정치에 따르면, 2011년 실질국내총생산(Bruttoinlandprodukt)은 전년 대비 약 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0년에는 약 3.7%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그림 1 참조).¹⁾ 이처럼 독일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들로는, 기업신용 대출 이자율이 낮아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율과 좋은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와 낮은 물가상승률 등을 들 수 있다.²⁾

독일경제의 안정성은 노동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경제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취업자 수와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가 예전보다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고용증가 경향에 힘입어 실업자 수도 상당한 감소세를 보여 1991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업능력이 있는 장기실업

1) DIW Berlin, Kräftiges Wachstum im Jahr 2011, aber Krise dämpft Konjunktur in diesem Jahr, Pressemitteilung vom 11. 01. 2012.

2) Manager-Magazin, Höchster Stand seit 1990: Zahl der Erwerbstätigen auf Rekordniveau, 17. 11. 2011.

[그림 1] 2002~2011년 독일의 실질국내총생산 증가율



자료 : BA,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12. 2011, p. 40.

자의 수도 감소하였으며, 기업의 일자리 공급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독일의 노동시장은 2009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유럽 각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견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물론 지난해 말경부터 독일의 경제성장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노동시장 전반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1년 독일의 노동시장 현황 및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2012년 독일의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독일의 2011년 노동시장 현황

연방노동국(Bundesagentur für Arbeit)에서 지난해 말에 발표한 2011년 12월 노동시장 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³⁾ 취업자 수와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1년 독일의 연평균 취업자 수는 약 41,094,000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541,000명(+1.3%)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고용 증가세에 힘입어 연평균 실업자 수는 2,975,821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실업자 수 추이

3) BA,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12.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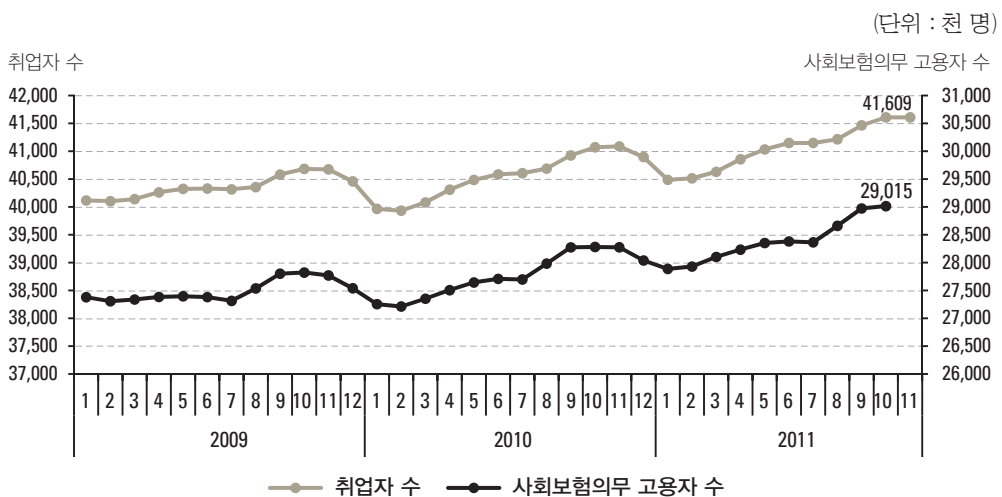
는 전년 대비 262,600명(-8.1%)이 감소한 것으로, 실업자 수 300만 명 이하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1년 이래로 가장 낮은 실업자 수치를 기록하였다.⁴⁾

취업자 및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 현황

독일의 취업자(Erwerbstätige) 및 사회보험의무 고용자(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 수는 2010년 말경에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1년 상반기부터는 다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2 참조). 가장 최근 현황 자료인 2011년 11월 취업자 수는 약 41,609,000명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보였으며, 전년 대비 약 521,000명(+1.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한편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는 취업자 수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1년 10월의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는 약 29,015,000명으로 전월 대비 약 42,000명(+0.1%)이 증가하였으

[그림 2] 최근 3년간 독일의 취업자 수 및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 변화 추이



4) 이는 현재 스페인의 실업률이 20% 이상으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양상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Spiegel Online, Konjunkturschub: Deutsche Wirtschaft trotz der Krise, 15. 11. 2011.

〈표 1〉 독일의 2011년 취업자 수,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 및 실업자 수 현황

(단위 : 천 명)

	취업자 수		사회보험의무고용자 수		실업자 수			
	총계	전년대비증감(%)	총계	전년대비증감(%)	총계	전년대비증감(%)	실업률(%) ²⁾	
2008 ¹⁾	40,345	1.2	27,458	+2.1	3,258	-13.3	7.8	
2009 ¹⁾	40,362	0.0	27,380	-0.3	3,415	+4.8	8.1	
2010 ¹⁾	40,553	0.5	27,710	+1.2	3,238	-5.2	7.7	
2011 ¹⁾	41,094	1.3	-	-	2,976	-8.1	7.1	
2011	1월	40,487	1.3	27,887	+2.3	3,346	-7.3	7.9
	2월	40,514	1.5	27,929	+2.6	3,313	-8.9	7.9
	3월	40,631	1.4	28,102	+2.7	3,210	-9.8	7.6
	4월	40,857	1.4	28,233	+2.6	3,078	-9.5	7.3
	5월	41,033	1.4	28,352	+2.6	2,960	-8.5	7.0
	6월	41,150	1.4	28,380	+2.4	2,893	-8.1	6.9
	7월	41,150	1.3	28,364	+2.4	2,939	-7.8	7.0
	8월	41,216	1.3	28,660	+2.4	2,945	-7.5	7.0
	9월	41,465	1.3	28,973	+2.5	2,796	-7.6	6.6
	10월	41,609	1.3	29,015	+2.6	2,737	-6.9	6.5
	11월	41,609	1.3	-	-	2,713	-7.3	6.4
	12월	-	-	-	-	2,780	-7.7	6.6

주 : 1) 연도별 평균치.

2)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민간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률.

자료 : BA,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12. 2011, pp. 81~85.

며, 전년 대비 약 734,000명(+2.6%)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는 그동안 경제위기로 인한 감소분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의 증가는 시간제고용(Teilzeitbeschäftigung) 보다는 전일제고용(Vollzeitbeschäftigung)에서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1년 6월의 전일제고용자 수는 22,680,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377,000명(+1.7%)이 증가하였으며, 시간제 고용자 수는 5,670,000명으로 전년 대비 281,000명(+5.2%)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중에서 시간제고용자의 비율은 2010년에 19.4%에서 2011년에 20.0%

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14.1% 그리고 1992년에는 12.0% 수준이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사회보험의무 고용자의 비율은 2011년에 69.1%로 전년도인 68.3%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했으나,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1992년에 76.8% 그리고 2000년에 70.0% 이하로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가족종사자를 비롯한 연평균 자영업자(Selbständige)의 수는 4,550,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57,000명(+1.3%)이 증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1년에 11.1%로 나타나 2010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참고로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1992년에 9.5% 그리고 2000년에 10.1%였다. 또한 저임금고용(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ung)의 경우 지난해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6월의 저임금고용자 수는 약 4,890,000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22,000명(-0.5%)이 감소하였다. 전체 취업자 중 저임금고용자의 비율은 11.9%로 나타나 2010년의 12.1%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그 외에도 저임금고용의 형태로 부업을 실시하는 사람들의 수는 전년 대비 135,000명(+5.7%)이 증가한 2,490,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중에서 부업을 실시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8.8%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 및 실업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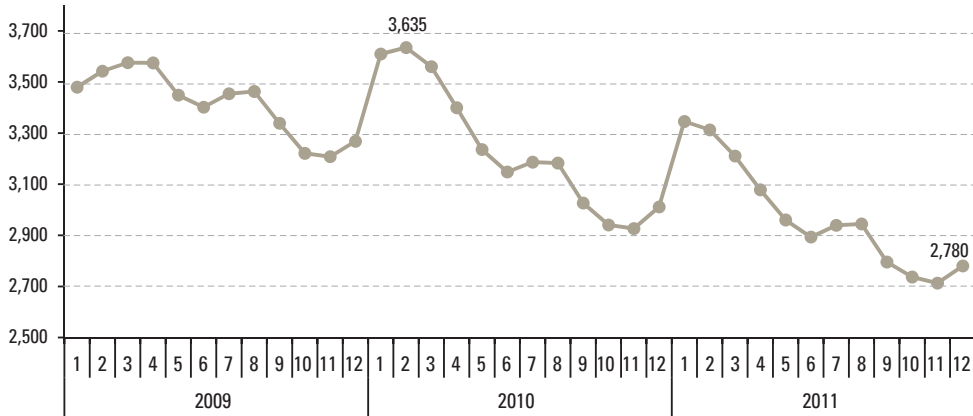
2011년 실업자(Arbeitslose) 수는 독일 전체적으로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평균 실업자 수는 전체 2,975,82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63,000명(-8.0%)이 감소하여 1991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실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로는 독일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그 외에도 지속적인 경제구조 개선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실업자 현황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독지역의 실업자 수가 동독지역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서독지역의 실업자 수는 전체 2,025,821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201,000명(-9.0%)이 감소한 수치이며, 동독지역의 실업자 수는 전체 950,000명으

5) BA,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12. 2011, p. 45.

[그림 3] 최근 3년간 독일의 실업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로 전년 대비 62,000명(-6.0%)이 감소하였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여성실업자 수는 전체 1,390,000명으로 전년 대비 6.0%, 그리고 남성실업자 수는 전체 1,586,000명으로 전년 대비 10.0%가 감소하여 여성보다는 남성그룹에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5~25세 미만 연령대의 청년층 실업자 수가 전년 대비 14.0%가 감소하였으며, 25~50세 미만 연령대의 실업자 수도 전년 대비 1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기실업자들의 수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기실업자란 표본조사일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사람들을 말하며, 2011년 평균 장기실업자 수는 959,000명으로 전년 대비 58,000명(-6.0%)이 감소하였다. 장기실업자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업자 수 감소율이 더 컸기 때문에,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율은 32%에서 33%로 다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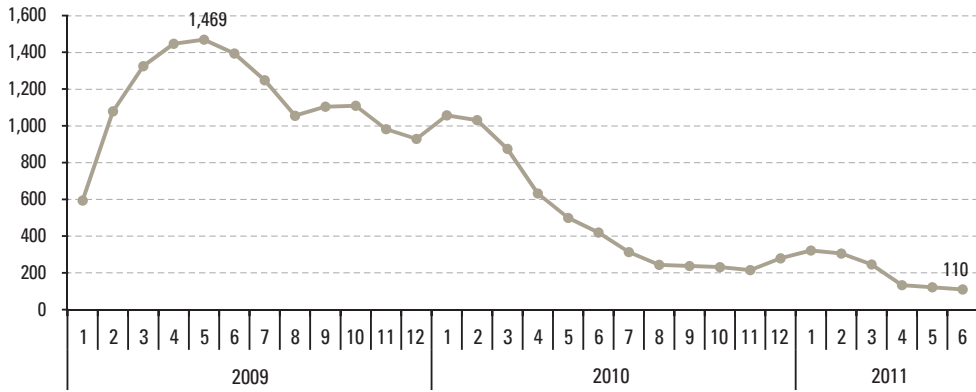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2011년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민간 경제활동인구 중 평균 실업률은 7.1%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약 0.6%가 감소하였다.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11.3%로 서독지역의 6.0%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조업단축 및 근로시간 현황

조업단축급여(Kurzarbeitergeld) 지급을 통해 단기적인 경기변동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그림 4] 최근 3년간 독일의 조업단축급여 수급 근로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기업들 또한 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실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⁶⁾ 현재의 독일 노동시장이 2009년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발전추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조업단축으로 대표되는 각종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연방노동부에 접수된 조업단축 신청건수 및 신청대상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10월에는 2,056건으로 37,471명 그리고 11월에는 5,436건으로 67,302명의 근로자에 대한 조업단축 신청이 접수되었다(표 2 참조).

가장 최근 자료인 2011년 6월의 조업단축급여 수급 근로자 수는 109,754명으로 전년 대비 309,761명(-73.8%)이 감소하였다. 조업단축급여 수급자 수는 2009년 5월에 최고치인 1,468,809명을 기록한 이후 2009년 하반기까지 차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2010년 3월을 기점으로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 이처럼 조업단축급여 수급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경기호황에 따라 생산능력을 다시 확충하고 정규 근로시간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⁷⁾

6) BA,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12. 2011, p. 12.

7) Fuchs et al., IAB-Kurzbericht, 19/2011, p. 6.

〈표 2〉 독일의 2011년 조업단축 실시현황

		조업단축 신청건수	조업단축 신청대상 근로자 수	조업단축급여 수급 근로자 수 현황		
				전체	전년대비	증감(%)
2007 ¹⁾		3,479	34,327	68,317	1,336	+2.0
2008 ¹⁾		4,433	74,870	101,540	33,224	+48.6
2009 ¹⁾		13,536	302,226	1,144,407	1,042,867	+1,027.1
2010 ¹⁾		5,766	67,055	502,694	641,713	-56.1
2011	1월	6,906	68,184	321,589	-735,353	-69.6
	2월	3,776	39,130	305,430	-725,401	-70.4
	3월	2,884	39,468	245,803	-628,543	-71.9
	4월	2,308	30,666	133,166	-498,842	-78.9
	5월	1,942	27,542	121,548	-377,386	-75.6
	6월	1,375	17,753	109,754	-309,761	-73.8
	7월	1,468	15,920	-	-	-
	8월	1,286	17,408	-	-	-
	9월	1,548	23,504	-	-	-
	10월	2,056	37,471	-	-	-
	11월	5,436	67,302	-	-	-
	12월	-	-	-	-	-

주 : 1) 연도별 평균치.

자료 : BA,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12. 2011, pp. 83~84.

2010년부터 지속된 경기호황으로 말미암아 2011년 취업자 개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1,412시간으로 전년 대비 소폭(+0.3%)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2009년의 경제위기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던 근로시간 규모도 2010년에 다시 회복세를 보였으며, 2011년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처럼 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조업단축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일자리 공급 현황

2011년에 전체적으로 연평균 466,049개의 일자리가 등록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7,011개(+29.8%)가 증가한 수치이다. 등록된 일자리 수는 경기회복세에 접어든 2010년 상반기 이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경제위기 이전 수준(2007년 평균: 422,721개)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독일의 2011년 등록된 일자리 수 현황

		등록된 일자리			BA-X 지수
		개수	전년대비 증감 (%)	사회보험의무고용 일자리	
2008 ¹⁾		388,675	-8.1	361,215	-
2009 ¹⁾		300,516	-22.7	274,251	-
2010 ¹⁾		359,038	+19.5	325,960	-
2011 ¹⁾		466,049	+29.8	431,770	-
2011	1월	374,671	+38.1	343,913	158
	2월	417,224	+40.1	384,367	163
	3월	442,094	+38.2	407,710	163
	4월	460,857	+37.7	425,004	166
	5월	470,201	+32.3	433,355	165
	6월	479,519	+29.6	443,136	168
	7월	492,237	+25.9	455,857	165
	8월	496,777	+25.3	461,132	170
	9월	501,217	+26.0	467,385	171
	10월	499,521	+24.7	465,099	171
	11월	491,656	+24.7	458,266	179
	12월	466,619	+22.9	436,010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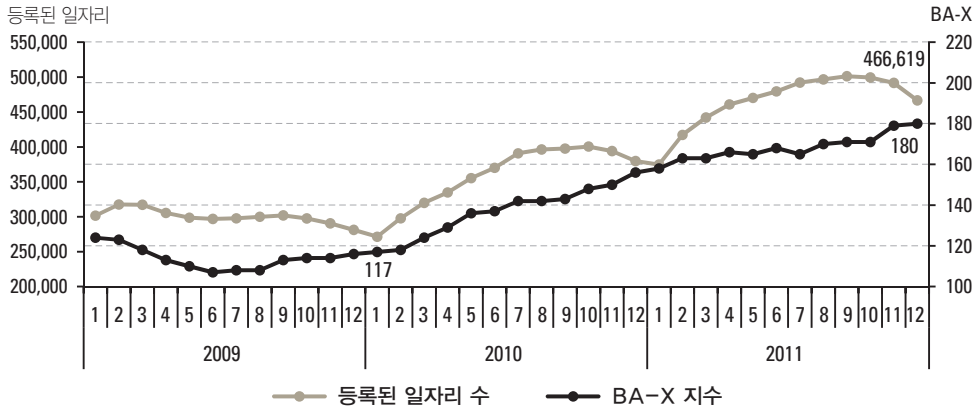
주 : 1) 연도별 평균치.

자료 : BA,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12. 2011, p. 109.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1년 서독지역의 전체 일자리는 390,396개로 전년 대비 91,146개(+30.5%)가 증가하였고, 동독지역의 일자리 수는 75,653개로 전년 대비 15,865개(+26.5%)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유럽 각국이 채무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기업들이 일자리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⁸⁾

8) Focus Online, Arbeitsmarkt: So viele Jobangebot wie nie, 29. 11. 2011.

[그림 5] 최근 3년간 독일의 일자리 공급 변화 추이



한편 연방노동청(BA)에서 발표하는 기업의 노동수요를 나타내는 BA-X 지수를 살펴보면, 기업의 노동수요는 2011년 9월과 10월에 각각 171로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11월과 12월에는 각각 179와 180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5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12월 BA-X 지수는 전년 대비 +1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상반기 이래로 지속적인 증가경향을 보여주고 있다.⁹⁾

단체협약 체결 현황

독일의 지속적인 경기회복세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 상황의 개선으로 말미암아 노동조합들도 예전과 같이 적극적인 임금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도에만 해도 대다수의 업종들이 일정 %의 임금인상을 실시하기보다는 정액일시금(Pauschalzahlungen)을 지급한 경우가 많았으나, 2011년부터는 다시 임금인상을 실시하는 등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따라서 2011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업종들의 협약임금 상승률은 약 3~4%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¹⁰⁾ 물론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3%로 임금상승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시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유효임금(Effektivlöhne) 수준은 협

9) BA, Der BA-X im Dezember 2011: Hohe Arbeitskräftenachfrage zum Jahreswechsel.

10) Bispinck/WSI-Tarifachiv, Tarifpolitischer Jahresbericht 2011, p. 1.

약임금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1년의 경기호황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약임금 이외에도 보너스 지급액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1년에 실시된 단체협상에서는 단지 임금 및 급여인상만이 주요 논의대상이 된 것은 아니며, 개별 협약단위별로 단체협약의 내용규범 설정을 둘러싼 갈등과 협상이 이루어졌다.¹¹⁾ 예를 들어, 인쇄산업부문에서 서비스노조(ver.di)는 파업투쟁을 동반한 3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 측의 임금삭감 요구를 거부하고 현재의 기본단체협약(Manteltarifvertrag)을 향후 3년 동안 내용변경 없이 재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또한 철강산업부문에서 금속노조(IG Metall)는 견습생들이 직업교육을 이수한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산별협약에 명시화하였다. 동독지역 화학산업부문에서 독일 광산화학에너지노조(IG BCE)는 근로자의 수명주기에 적합한 근로시간 편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근로자의 수명주기에 적합한 근로시간 편성에는 연령에 맞는 근로시간 및 내용조정, 협약상 가족과의 시간보장, 특정 근로자 그룹을 위한 근로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독일 우체국의 경우 서비스노조는 연령에 맞는 근로구성 및 보장 그리고 약 13만 명의 근로자들이 2015년 말까지 경영상 해고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보호패키지를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맺음말 : 2012년 노동시장 전망

최근 독일정부와 각종 연구기관에서는 2012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현재 유럽 각국의 채무악화 상황과 같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른 2012년 독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당초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0.1~0.6% 수준에 머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¹²⁾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긴축재정 정책 증

11) Hans-Böckler-Stiftung Pressedienst, WSI zieht Tarifbilanz 2011: Höhere Tarifabschlüsse – Konflikte um Tarifstandards, 14. 12. 2011.

12) Hans-Böckler-Stiftung Pressedienst, Neue Konjunkturprognose des IMK: Deutsche Wirtschaft schrumpft 2012 um 0,1 Prozent, 20. 12. 2011; DIW Berlin, Kräftiges Wachstum im Jahr 2011, aber Krise dämpft Konjunktur in diesem Jahr, Pressemitteilung vom 11. 01. 2012.

가로 인해 유럽 내 재화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결국 수출중심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각종 연구소의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2012년 상반기에는 현재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업자 감소추세가 정체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며, 하반기부터는 다시 실업자 수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 고용연구소(IAB)에서는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0.2% 수준에 머물게 될 경우 실업자 수는 약 20,000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약 2,996,000명으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³⁾ 취업자 수 또한 2011년에 비해 약 10,000명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당초의 예상보다는 약 70,000명 가량이 낮아진 수치이다.

한편 예상되는 경기정체 현상으로 말미암아 전일제고용이 감소하고, 조업단축 실시가 다시 빈번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 개인당 근로시간 또한 전체적으로 약 0.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2012년 평균 조업단축 실시 근로자 수는 약 260,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독일의 경기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시장은 아직까지 견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연방노동국은 “독일기업들이 경기가 다시 침체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최근 실업자 수의 기록적인 감소와 취업자 수의 증가 그리고 기업의 일자리 공급 증가는 독일의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KLI**

13) Fuchs et al., IAB-Kurzbericht, 19/2011, p. 8.

참고문헌

- Bispinck, Reinhard / WSI-Tarifachiv, Tarifpolitischer Jahresbericht 2011: Höhere Tarifabschlüsse – Konflikte um Tarifstandards – Neue Tarifregelungen,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WSI) der Hans-Böckler-Stiftung, 01. 2012. http://www.boeckler.de/pdf/p_ta_jb_2011.pdf
- Bundesagentur für Arbeit(BA),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Dezember und das Jahr 2011, 12. 2011. <http://statistik.arbeitsagentur.de/Statischer-Content/Arbeitsmarktberichte/Monatsbericht-Arbeits-Ausbildungsmarkt-Deutschland/Monatsberichte/Generische-Publikationen/Monatsbericht-201112.pdf>
- Bundesagentur für Arbeit(BA), Der BA-X im Dezember 2011: Hohe Arbeitskräftenachfrage zum Jahreswechsel. <http://statistik.arbeitsagentur.de/Statischer-Content/Arbeitsmarktberichte/Berichte-Broschueren/Stellenangebot/Stellenindex-der-BA/Generische-Publikationen/Ba-X-201112.pdf>
- DIW Berlin, Kräftiges Wachstum im Jahr 2011, aber Krise dämpft Konjunktur in diesem Jahr, Pressemitteilung vom 11. 01. 2012. http://www.diw.de/de/diw_01.c.391301.de/themen_nachrichten/diw_berlin_kraeftiges_wachstum_im_jahr_2011_aber_krise_daempft_konjunktur_in_diesem_jahr.html
- Focus Online, Arbeitsmarkt: So viele Jobangebot wie nie, 29. 11. 2011. http://www.focus.de/finanzen/news/arbeitsmarkt-so-viele-jobangebote-wie-nie_aid_688887.html
- Fuchs, Johann / Hummel, Markus / Hutter, Christian / Klinger, Sabine / Spitznagel, Eugen / Wagner, Susanne / Weber, Enzo / Zika, Gerd, Prognose 2011/2012: Schwere Zeiten für den Arbeitsmarkt, IAB-Kurzbericht 19/2011. <http://doku.iab.de/kurzber/2011/kb1911.pdf>
- Hans-Böckler-Stiftung Pressedienst, Neue Konjunkturprognose des IMK: Deutsche Wirtschaft schrumpft 2012 um 0,1 Prozent, 20. 12. 2011.
- Hans-Böckler-Stiftung Pressedienst, WSI zieht Tarifbilanz 2011: Höhere Tarifabschlüsse – Konflikte um Tarifstandards, 14. 12. 2011. http://www.boeckler.de/14_38464.htm

-
- Manager–Magazin, Höchster Stand seit 1990: Zahl der Erwerbstätigen auf Rekordniveau, 17. 11. 2011. <http://www.manager–magazin.de/politik/deutschland/0,2828,798380,00.html>
 - Spiegel Online, Konjunkturschub: Deutsche Wirtschaft trotz der Krise, 15. 11. 2011.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0,1518,797800,00.html>